



싸우며 찾는 죽지 않을 권리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입니다.

1993년 5월 10일, 태국 방콕 인근에 위치한 미국 인기 만화영화 <심슨 가족>의 캐릭터 인형을 만드는 케이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사망하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중 174명은 여성노동자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화재 경보기조차 없는 열악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담뱃불이었지만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장난감을 훔쳐갈까봐 회사측에서 공장 문을 밖에서 잠근 것이었습니다. 노동자 생명보다 장난감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더 중요했던 회사의 행동에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이더 참사 이후 1996년 4월 28일 국제연합(UN)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 노동자들은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에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며 전 세계에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각국의 노조 대표자들은 케이더 공장 희생자와 그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 1993년 태국 인형공장과 2026년 한국 자동차부품공장.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의 희생을 부른 참사라는 점이 닮아있다.

수많은 징조, 외면한 회사, 예견된 참사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한다

"아리셀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안전공업 노동자가 화재 두 달 전 위험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 및 법적 문제가 있다며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올린 국민신문고 제목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2.5층 휴게 공간 바로 위층에 설치된 '3층 무허가 정제실'에서 나트륨 등 위험물 불법 제조를 폭로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내부 문제제기가 경영진에게 묵살되자 신문고에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이날을 기점으로 매년 4월 28일을 공식적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여개 국가에서는 4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고, 현재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7월2일, 문송면 노동자 수은중독 사망,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펼쳤고, 2002년부터 민주노총은 4월을 <산업재해 추모의 달>로 정합니다. 국회는 2024년에 4월 2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와 추모일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동료들의 비극, 이후 현장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벌여온 싸움의 결과입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2024년 6월, 24명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이 된 삼표그룹의 회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신호가 있었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본의 무한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이고 인재(人災)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의 죽음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를 끊임없는 자본과의 투쟁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4월을 맞아 추모와 결의를 동시에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공업은 과거 빈번한 화재 발생, 불법 증축, 위험물질 관리 소홀, 화재경보기 오작동, 매연 배출과 탈출구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쌓여왔고 사용자는 방치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진상과 책임을 정확히 따지고 최고경영진 등 책임자에게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과거 위험징후를 발견하고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히고 현장점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안전공업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동조합 활동에 자본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노동안전활동은 담당간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노동안전보장이 무너지면 현장이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다시 현장을 돌아봅시다. 동향&전망